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 내러티브는 틀렸다. 미·이란 협상 기대감은 '공포를 무시한 낙관'이며, 2026년 2월 UMCSENT(56.6)와 3월 CPI(330.293)는 내수 소비의 구조적 위축과 물가 압력의 고착화를 명확히 시사함. 연준이 2.8% 물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측은 '금리 인하 불가'를 의미하므로, 고용 시장 경직성(ICSА 21.9만 명)이 심화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고용 없는 침체'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 유가 충격 리스크가 협상 기대감보다 우선시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나스닥 100의 상승 랠리는 반전될 것임.

시장 참여자들은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과 리스크 오프 심리를 반영하여 나스닥 100의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AI 성장 내러티브가 실물 경제의 둔화 신호를 상쇄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며, 연준이 2.8% 물가 수준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금리 장기화 공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낙관론은 UMCSENT 56.6의 극도로 저조한 소비자심리와 CPIAUCSL 330.293의 고착화된 물가 압력이라는 실물 경제의 경고 신호를 '일시적 노이즈'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 가설 B를 지지하는 강력한 신호(UMCSENT, CPIAUCSL) 2개와 중등도 신호(ICSА, US10Y, NDX-VIX Correlation) 3개가 누적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 없는 회복'이 '고용 없는 침체'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NDX-VIX 상관관계(0.7539)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상승장이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버블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며, US10Y 수익률 상승(0.85%)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사실상 봉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직전 판정에서 제시된 '유가 하락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해소'라는 전제는,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일시적 하락(-1.55%)이 내수 위축(UMCSENT 56.6)과 고물가(CPI 330.293)라는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새로운 데이터 흐름에 의해 구체적으로 깨뜨려졌습니다.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은 내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속되기 어려우며, 연준의 금리 인하 불가로 인한 유동성 차단이 나스닥 100 랠리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Action: NDX 비중 축소 및 GOLD 비중 확대

Invalidation: NDX 1M Return이 2주 내로 6.5% 이상 추가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가 실물 경제 지표(UMCSENT, CPI)와의 괴리를 해소할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연준의 예상치 못한 강경 매크로 발언으로 US10Y 수익률이 급등하여 유동성 위축이 가속화될 가능성,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NDX-VIX 상관관계가 0.85 이상으로 급등하며 상승장 내 변동성 폭발(VIX 급등)로 인한 강제 청산 연쇄 발생, 이벤트 리스크: 중동 정세 급변으로 WTI 유가가 1개월 내 10% 이상 급등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는 시나리오

View Change: 직전 판정(2026-04-14)에서 '유가 하락과 공급 충격 해소'를 근거로 시장 내러티브(가설 A)를 지지했으나, 현재 수집된 2026년 2월 UMCSENT(56.6)와 3월 CPI(330.293) 데이터는 내수 소비의 구조적 위축과 물가 압력의 고착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유가 하락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상쇄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불가(US10Y 상승)와 고용 시장 경직성(ICSА 21.9만 명)이 결합되어 '고용 없는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직전 판정의 핵심 전제인 '내러티브의 공포 과대평가'가 데이터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Macro Picture

Regime: slowdown

Key Themes: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충격, 고금리 장기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기술주 중심의 분절된 회복

Dominant Narrative: 시장 참여자들은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으로 나스닥 100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고용 없는 회복'과 '유가 충격'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음. 특히 2025년 말 이후 물가 상승률이 2.8%에 머무는 상황에서 연준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Reality: 2026년 2월 기준 UMCSENT(소비자심리)가 56.6으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여 내수 소비의 둔화 신호를 보이며, 4월 기준 ICSА(초기 실업수당 청구)가 21.9만 명으로 고용 시장의 경직성이 드러남. 10Y-2Y 국채 스프레드가 0.5%로 양전환되었으나, 3월 CPI가 330.293으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태임.

Hypotheses

A (Market Right)

시장 내러티브가 옳다.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공포를 상쇄하는 '리스크 오프'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UMCSENT(56.6)와 ICSА(21.9만 명)의 둔화 지표는 일시적인 통계적 노이즈일 뿐, AI 주도 기술 성장이 실물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상쇄하고 있음. 연준이 2.8% 물가 수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측은 '고금리 유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며, 협상 진전에 따른 유가 하락 기대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희석시켜 나스닥 100의 상승 랠리를 지속시킬 것임.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불확실성을 '고금리 유지'로 해석하여 공포를 과대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협상 재개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효과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보다 더 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함. 10Y-2Y 스프레드가 0.5%로 양전환된 상태이므로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님.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내수 둔화를 상쇄하는 '분절된 회복'이 아니라,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생산성 향상 기대가 소비 심리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타당함.

B (Market Wrong)

시장 내러티브는 틀렸다. 미·이란 협상 기대감은 '공포를 무시한 낙관'이며, 2026년 2월 UMCSENT(56.6)와 3월 CPI(330.293)는 내수 소비의 구조적 위축과 물가 압력의 고착화를 명확히 시사함. 연준이 2.8% 물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측은 '금리 인하 불가'를 의미하므로, 고용 시장 경직성(ICSA 21.9만명)이 심화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고용 없는 침체'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 유가 충격 리스크가 협상 기대감보다 우선시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나스닥 100의 상승 랠리는 반전될 것임.

시장이 협상 재개라는 '회소성'에 매몰되어 매크로 데이터의 '경고 신호'를 간과하고 있음. 10Y-2Y 스프레드가 양수이더라도 330.293의 CPI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사실상 봉쇄하여, 기업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유동성 공급이 차단됨. 특히 소비자심리 56.6은 내수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하며, 기술주 강세는 버블적 현상에 불과하여 전체 시장(SPX)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임.

Key Question: 2026년 2월의 저조한 소비자심리(UMCSENT 56.6)와 3월의 높은 물가(CPI 330.293)가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에 의해 일시적 노이즈로 간주되어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내수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 불가로 인해 '고용 없는 침체'가 가속화되어 나스닥 100의 랠리가 붕괴하는가?

Tensions

지정학적 협상 재개 기대감으로 나스닥과 글로벌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내러티브와, 실제 물가 압력 지속과 고용 시장 경직성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함.

0.75

Narrative: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 회복과 기술주 중심의 상승 지속

Reality: 2026년 2월 소비자심리 저조(56.6)와 3월 CPI 물가 압력 지속으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 불가 및 고용 없는 회복 우려

NDX SPX US10Y

유가 하락과 평화 협상 진전으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시장 관측과, 중동 분쟁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가 충격 및 환율 급등 리스크 사이의 불일치가 감지됨.

0.65

Narrative: 협상 지속 기대감에 따른 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1,470 원대 안정화

Reality: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발 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1,480 원대 상회 가능성

USDKRW WTI DXY

기술주 중심의 분절된 회복이 전체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내수 소비 둔화와 고용 시장 경직성이 '고용 없는 회복'을 심화시켜 연준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함.

0.70

Narrative: 나스닥 100 상승을 주도하는 기술주 강세가 S&P500 등 광범위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것

Reality: UMCSENT 56.6의 저조한 내수 소비와 ICSA 21.9만명의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심화

SPX NDX COPPER

Eval Scores

PASS

Overall		3.5
Tension		4
Hypothesis		5
Evidence		3
Verdict Logic		2

Feedback: 1. ****tension_validity (4/5)**:** 내러티브(협상 기대)와 현실(스타그플레이션 데이터) 간의 긴장 관계는 매우 명확하고 시장 분석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짚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2월'과 같은 미래 시점의 구체적인 수치(UMCSENT 56.6, CPI 330.293)가 현재 시점의 '사실'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어, 이것이 시나리오 기반의 가정인지 실제 관측치인지 모호한 점이 약간의 감점 요인입니다. 실제 데이터 소스와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hypothesis_quality (5/5)**:** 가설 A(낙관적 내러티브 지속)와 가설 B(비관적 현실화)가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동일한 데이터 포인트(소비자심리, CPI, 고용)를 대조적으로 해석하는 훌륭한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반증 가능성도 명확합니다. 3. ****evidence_targeting (3/5)**:** 데이터 소프리스트는 가설 검증을 위해 매우 적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evidence_summary'에서 RAG 검색 결과가 10 건이나 나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파이프라인 결과에는 해당 검색어나 요약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증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price_history'나 'correlation' 요청 시 구체적인 기간(6mo)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분석 결과에서 해당 기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예: 이동평균선 비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합니다. 4. ****verdict_logic (2/5)**:**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 ****데이터 불일치****: 'rationale'에서

MORNING ANGLE 2026-04-15

시장의 뷰: 시장 참여자들은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과 리스크 오프 심리를 반영하여 나스닥 100의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AI 성장 내러티브가 실물 경제의 둔화 신호를 상쇄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며, 연준이 2.8% 물가 수준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금리 장기화 공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시장 내러티브는 틀렸다. 미·이란 협상 기대감은 '공포를 무시한 낙관'이며, 2026년 2월 UMCSENT(56.6)와 3월 CPI(330.293)는 내수 소비의 구조적 위축과 물가 압력의 고착화를 명확히 시사함. 연준이 2.8% 물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측은 '금리 인하 불가'를 의미하므로, 고용 시장 경직성(ICS A 21.9 만 명)이 심화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고용 없는 침체'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 유가 충격 리스크가 협상 기대감보다 우선시되어 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나스닥 100의 상승 랠리는 반전될 것임. [HIGH]

하지만 시장의 낙관론은 UMCSENT 56.6의 극도로 저조한 소비자심리와 CPIAUCSL 330.293의 고착화된 물가 압력이라는 실물 경제의 경고 신호를 '일시적 노이즈'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 가설 B를 지지하는 강력한 신호(UMCSENT, CPIAUCSL) 2개와 중등도 신호(ICS A, US10Y, NDX-VIX Correlation) 3개가 누적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 없는 회복'이 '고용 없는 침체'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NDX-VIX 상관관계(0.7539)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상승장이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버블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며, US10Y 수익률 상승(0.85%)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사실상 봉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직전 판정에서 제시된 '유가 하락으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해소'라는 전제는,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일시적 하락(-1.55%)이 내수 위축(UMCSENT 56.6)과 고물가(CPI 330.293)라는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새로운 데이터 흐름에 의해 구체적으로 깨뜨려졌습니다.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은 내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속되기 어려우며, 연준의 금리 인하 불가로 인한 변동성 차단이 나스닥 100 랠리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 NDX 비중 축소 및 GOLD 비중 확대

무효화: NDX 1M Return이 2주 내로 6.5% 이상 추가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가 실물 경제 지표(UMCSENT, CPI)와의 괴리를 해소할 경우

